

강원지역의 불교회화

2023.9.1.金 - 12.31.日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운영활성화 사업
월정사성보박물관 특별전



주관



월정사 성보박물관
Wolsongsa Museum

후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주 관 월정사성보박물관
후 원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전시총괄 해운 스님(김정귀)
전시기획 자엄 스님(홍순문) 홍순욱
전시진행 김경옥 김원중 서은호 임진호 조유나 황경아

발 행 인 해운 스님(김정귀)
발 행 일 2023년 8월
발 행 처 월정사성보박물관
우)2531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Tel 033) 339-7000
<http://wjssm.kr/>

디자인·제작 고려출판사

전시를 열며

월정사성보박물관은 가을을 맞이하여 “강원지역의 불교회화”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전시유물은 최근 보존처리를 완료한 불화 2점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보물. 1727년),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1811년)와 〈삼척 신흥사 신중도〉(1875년)를 비롯하여 그동안 전시에 자주 공개되지 않았던 조선후기 및 근대에 제작된 불교회화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월정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화들을 작은 주제들로 나누어 전시합니다. 부처의 설법 장면을 그린 불화, 부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신중을 그린 불화, 지역별로는 삼척 신흥사, 삼척 영은사, 영월 보덕사, 오대산 상원사와 중대, 원주 구룡사, 횡성 봉복사의 불화 등이 있습니다. 불화는 복장을 납입하고 증명하는 법식을 거쳐 예배 대상으로서 생명력을 갖추어 봉안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화의 복장유물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불화들은 대부분 제작한 화승들이 누구인지 불화나 발원문에 기록으로 남아있어 가치가 높습니다. 불화를 여러 명이 그린 경우 책임자를 ‘수화승’이라 하는데, 각 작품들의 대표적 수화승은 혜산당 축연, 석옹당 철유, 경선당 응석, 보암당 금법, 범화당 윤익, 동호당 진철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누군가가 수화승일 때 동참하여 함께 작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남긴 작품들은 현재 여러 지역에 전해져오고 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한자리에서 화승들의 인연 속에 있던 강원지역의 불교회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옛 승려들이 부처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모습을 공유하였는지 살피는 것도 불교회화를 감상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옛 화승들이 그려내신 부처와 보살, 부처의 제자, 신중들을 만나보시고 선선한 가을, 청량산 오대산에서 불·보살의 미소를 마음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原州 龜龍寺 三藏菩薩圖

Buddhist Painting of Three Bodhisattvas
in Guryongsa Temple, Wonju

보물 寶物
조선후기(1727년)
비단 바탕에 채색
167.3×250.0cm
백기, 영휘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는 화면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후기 1727년에 치악산 구룡사에 봉안된 불화로 제작한 장인은 화원 비구 백기(白基), 영휘(映輝)입니다. 삼장보살도는 세 보살 존상이 법을 설하고 각각의 권속들이 모여서 듣는 회상(會上) 장면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림의 가운데에는 천상계(天上界)의 천장보살(天藏菩薩)이 설법하는 천장회상, 좌측에는 땅 위 지상계(地上界)의 지지보살(持地菩薩)이 설법하는 지장회상, 우측에는 진리의 빛이 없는 유명계(幽冥界)의 지장보살(地藏菩薩)이 설법하는 지장회상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삼장보살도는 불전(佛殿)에서 중단(中壇)에 위치하고, 조선시대에 많이 행해진 영가 천도 의식인 수륙재에서 사용되었던 불화입니다. 삼장보살도의 등장인물은 수륙재 의식집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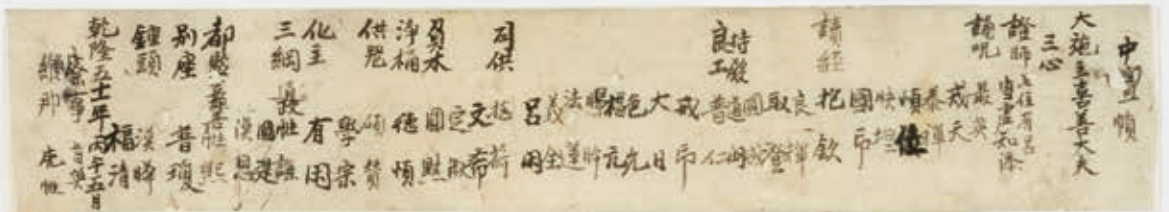
구룡사 삼장보살도 복장유물

龜龍寺 三藏菩薩圖 腹藏遺物

Buddhist Painting of Three Bodhisattvas and a Collection of
Excavated Relics in Guryongsa Temple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江原特別自治道 有形文化財
조선후기(1727년)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의 상부에 걸쳐 있던 비단 주머니에서는 비단 보자기, 발원문 2매, 다라니 1매, 후령통候鈴筒, 팔엽대홍련주八葉大紅蓮呪 외에도 범자梵字로 붉은 색이 쓰여진 흰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복장유물은 이 그림이 《조상경造像經》의 「제불복장단의식諸佛腹藏壇儀式」에 의거해 불교 예배 대상으로서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의식을 거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묵서로 된 발원문 중에서 하나의 표제에는 ‘옹정오년정미오월일雍正五年丁未五月日 필공畢功 삼장회三藏會 일위一位’라고 되어있어, 1727년 5월에 삼장회 1점을 봉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1매의 발원문에는 표제에 ‘중단탱中壇幀’이라고 되어 이 그림이 법당 중단에 모셔지는 불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발원문에는 불사佛事に 참여한 시주자, 증사, 지전, 화원, 공양, 별좌, 화주 외에도 봉안의식에 참여한 증사, 증명, 독경 등 불화를 제작하는 데에 여러 소임을 맡아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지지보살의 설법장면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

寧越 報德寺 地藏十王圖

Painting of Ksitigarbha Bodhisattva and Ten Underworld Kings
in Bodeoksa Temple, Yeongwol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江原特別自治道 有形文化財

조선후기(1786년)

비단 바탕에 채색

200.0×198.0cm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는 화기畵記가 없어서 제작연대를 알 수 없으나 표현기법이 극락보전의 영산회상도와 동일하여 1786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의 중앙에 지장보살이 구슬을 들고 연화대좌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 세부표현

지장보살의 좌우에는 도명존자·무독귀왕, 제석천·범천, 각각 지옥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시왕+王을 위시하여 판관, 옥졸, 동자, 동녀 등이 대칭을 이루며 배치되었고 형상이 개성있게 표현되었습니다. 화면의 상부에는 중생들이 윤회하는 여섯가지 세계를 다스리는 육광보살六光菩薩, 즉 용수보살·상비보살·타라니보살·관음보살·금강장보살·지장보살이 각각 녹색의 두광을 갖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화면의 하부에는 두 명의 선악동자가 각각 육환장과 함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는 1990년 8월 도난되었다가 2017년 9월에 환수되었습니다.



강릉 백운사 소장 현왕도 江陵 白雲寺 所藏 現王圖

Painting of the king of the netherworld in Baegunsa Temple,
enshrined in Jangansa Temple in Geumgangsan Mountain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江原特別自治道 有形文化財
조선후기(1879년)
비단 바탕에 채색
116.0×101.5cm
화산 재근, 철유



강릉 백운사 소장 현왕도 세부표현

현왕도는 시왕도十王圖 가운데 다섯 번째 그림인 제5염라대왕도가 별도로 독립되어 그려진 도상으로 금강산 표훈사 불지암佛地庵에서 1879년 제작되어, 금강산 장안사長安寺에 봉안했던 불화입니다. 수화승 화산재근華山在根이 철유喆侑와 함께 그린 작품으로, 화승의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화면의 중앙에는 염라대왕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륜성왕大輪聖王과 전륜성왕轉輪聖王, 판관判官·녹사綠事·사자使者가 각각 2위, 동자가 4위 배치되었습니다. 존상들의 자유로운 자세와 다양한 지물 등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인물상들의 표정은 생동감있게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삼척 영은사 석가삼존도

삼척 영은사 석가삼존도와 복장유물

三陟 靈隱寺 釋迦三尊圖·腹藏遺物

Painting of Shakyamuni Triad and Excavated Relics
in Yeongeunsa Temple, Samcheok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江原特別自治道 有形文化財

조선후기(1841년)

면 바탕에 채색, 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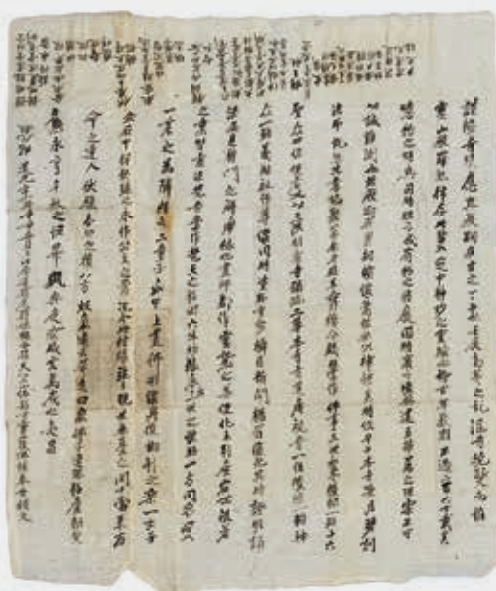
198.0×287.0cm

봉흔, 취봉 등 5인

삼척 영은사에 소장되었던 1841년에 제작한 석가삼존도와 불화의 뒷면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입니다. 〈삼척 영은사 석가삼존도〉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칠하고 은가루를 갠 선을 그어 주요 존상과 구성요소를 표현한 불화입니다. 화면 중앙에는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켜 향마촉지인을 한 석가모니 부처가 연화대좌 위에 가부좌한 모습이고, 그 좌우에는 각각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합장하여 시립하였습니다. 화면 좌측에는 문수보살, 우측에는 보현보살이 각각 연꽃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며, 석가모니의 양쪽 무릎 아래에는 2위의 동자가 각각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상징하는 사자와 코끼리를 탄 채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화기의 연화질 부분은 박락되었지만 복장유물인 발원문에 의해서 봉흔奉欣, 취봉取朋을 비롯한 5인의 화승이 제작에 동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원문에 의하면 강원도 영동 울진현 서령 천축산 불영사 영산전에 봉안하였던 불화이고 복장유물은 후령통, 오보병, 진언다라니, 발원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척 영은사 석가삼존도 세부표현



영은사 석가삼존도 복장유물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

三陟 靈隱寺 釋迦如來會圖

Painting of Shakyamuni Preaching
in Yeongeunsa Temple, Samcheok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江原特別自治道 有形文化財

조선후기(1811년)

비단 바탕에 채색

391.0×305.0cm

계성 등 25인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는 석가여래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불화입니다. 화면 중앙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2위의 벽지불, 8대 보살, 4대 천왕, 범천과 제석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비롯한 10대제자, 팔금강, 용왕, 용녀, 호계대신, 복덕대신 등이 대칭을 이루며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석가여래는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려 향마촉지인을 하였으며 수미단의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입니다. 8대 보살은 여의, 연꽃, 정병 등 지물을 들거나 합장하고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하부의 화기는 모두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좌측 앞부분에는 불화의 조성 및 봉안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화기 중 일부는 도난 이후 절취되어 없어졌으나 도난 이전 화기의 내용이 알려져 불화의 봉안 및 조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기에 의하면 1811년에 강원도 삼척부 남태백산 영은사 대웅전에 후불탱을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주질施主秩에는 대시주인 이성理性和 서곡당西谷堂 범연軌演이 돌아가신 부모님과 은사 등을 위해 함께 발원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사질本寺秩에는 자암당紫巖堂 쾌안快眼을 비롯한 60여 명의 승려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연화질緣化秩에는 불화 제작에 참여한 승려가 증명, 지전, 금어, 봉재, 제주, 종두, 정통, 별좌, 도감, 흘원, 화주 등 소임별로 쓰여졌습니다. 화원으로는 편수 계성戒成, 부편수 관보瑄甫를 비롯하여 은허당 천수, 한송당 도등, 송악당 근정, 승환 등 총 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 화기書記 연화질緣化秩





삼척 영근사 석가여래회도 세부표현







영월 보덕사 사성전 후불탱화

영월 보덕사 사성전 후불탱화 및 복장유물

寧越 報德寺 四聖殿 後佛幀畫・腹藏遺物

Hanging Scroll Painting behind the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the Hall of four saints in Bodeoksa Temple, Yeongwol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江原特別自治道 有形文化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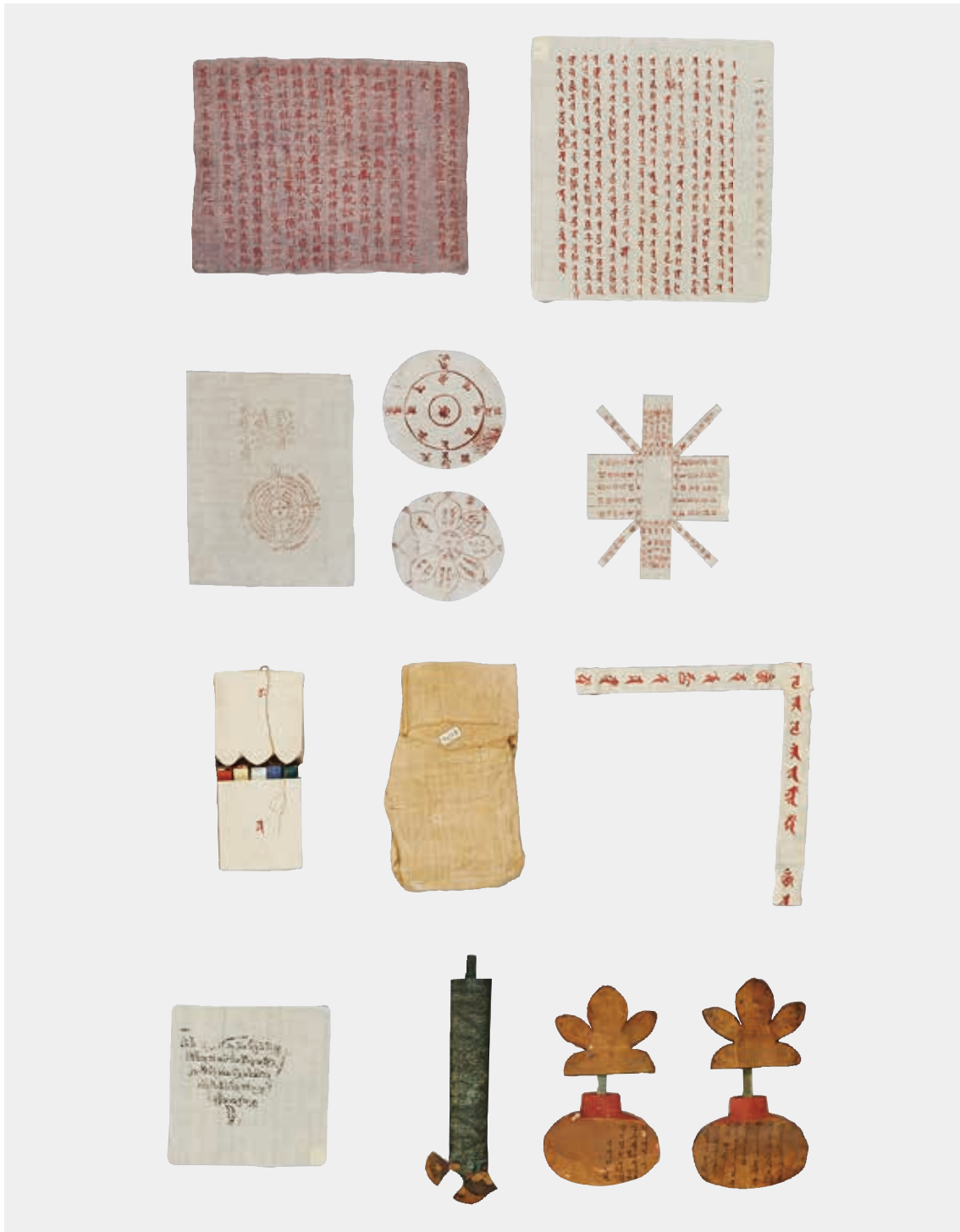
조선후기(1868년)

비단 바탕에 채색

178.0×227.0cm

의운자우, 응헌, 장석, 창우 등 15인

영월 보덕사 사성전에 봉안되었던 후불탱화로, 석가모니 부처의 좌우에 연등불을 보살화한 과거불 제화갈라보살提和竭羅菩薩, 미래불 미륵보살彌勒菩薩이 배치된 삼존도입니다. 석가모니의 협시로 문수동자文殊童子가 사자를 타고 앉아 있으며 오른쪽에는 보현동자普賢童子가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존의 뒤로 10대 제자가 좌우에 각 5위씩 대칭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가로로 긴 횡축의 구도로 존상의 섬약한 이목구비의 표현 및 높은 육계, 이완된 필선, 옷자락 끝에 표현된 잔잔한 꽃무늬와 보살광배의 광선무늬, 문수 보현동자의 등장, 도안화 된 구름무늬 등 전형적인 19세기 불화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하부의 화기畵記와 복장주머니에서 발견된 원문願文을 통해 1868년 의운자우意雲慈雨가 주관하여 응헌應憲, 장석章奭, 창우敞愚 등 15명의 화승이 그린 불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월 보덕사 사성전 후불탱화 복장유물

복장유물은 불화 상부 좌우에 하나씩 걸려 있던 복장주머니와 그 속에 봉안되었던 유물이며, 《조상경造像經》의 「제불복장단의식諸佛腹藏壇儀式」에서 밝힌 품목들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복장주머니에서 나온 유물은 원문顯文 1매, 후령통喉鈴筒 1점, 후령통을 싼 보자기黃綃幅子, 팔엽대홍련주八葉大紅蓮呪, 천원天圓, 지방地方(금강을 나열한 그림), 범자로 쓰여진 진언眞言 2매와 오륜종자五輪種子, 오방경五方鏡(범자를 한 글자씩 적은 작은 종이) 등이 남아 있습니다. 불교회화가 예배대상으로의 생명력을 갖추기 위해서 경전에 의거한 의식 절차를 거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척 신흥사 아미타후불도

三陟 新興寺 阿彌陀後佛圖

Painting of Amitabha Buddha of Sinheungsa Temple, Samcheok

조선후기(1861년)

삼베 바탕에 채색

163.5×215.0cm

중봉혜호, 장엽

이 불화는 1861년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제작하여 삼척부 신흥사 대웅전에 봉안하였던 불화이며, 중봉 혜호와 장엽이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가로로 긴 화면의 중앙에는 수미단 위에 아미타여래가 결가부좌 하고 설법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광과 신광은 둥근 형태이고 구름이 감싸고 있습니다. 화면 하부 수미단의 앞과 양옆에는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등 6위의 보살과 사천왕이 각각의 지물을 들고 시립한 모습입니다. 화면 상부 아미타여래의 두광 좌우에는 각각 여래 1위가 합장을 하여 군중을 내려다 보고 있으며, 화면 상부 좌우에는 동자와 동녀, 부처의 10대제자, 용왕과 용녀, 호계대신과 복덕대신 등이 모여서 합장을 하거나 경책 또는 홀을 들거나 수인을 결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채색은 주로 녹·청색과 붉은색, 황색을 사용하였습니다.



삼척 신흥사 아미타후불도

三陟 新興寺 阿彌陀後佛圖

Painting of Amitabha Buddha of Sinheungsa Temple, Samcheok

조선후기(1875년)

면 바탕에 채색

172.0×135.0cm

용하, 축연,

철유, 성운, 광엽

이 불화는 화기에 의하면 1875년 11월에 신흥사에 봉안되었으며 제작 당시에는 화승 용하, 축연, 편수인 철유, 성운, 광엽이 참여하였습니다. 금강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축연과 철유의 활동 초기작품입니다.

세로로 긴 화면 중앙에는 아미타여래가 높이 솟은 연화 위에 가부좌하여 앉아 설법인을 취한 모습입니다. 본존은 녹색의 두광과 황토색 원형 신광을 갖추었으며 육계에서 상서로운 문양이 나와 화면 상부로 퍼지는 모습입니다. 본존 좌우에는 보관에 화불을 갖춘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보살 4위, 4천왕,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비롯한 10대 제자, 용왕, 용녀가 운집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채색은 주로 녹색, 붉은색, 황색, 청색이 조화롭게 표현되었습니다.



삼척 신흥사 신중도

三陟 新興寺 神衆圖

Painting of Buddhist Guardian Deities
in Sinheungsa Temple, Samcheok

조선후기(1875년 추정)

삼베 바탕에 채색

129.0×108.0cm

용하, 축연, 철유, 성운, 광엽

이 불화는 강원도 삼척부 태백산 신흥사에서 제작되어 신흥사 청련암에 봉안되었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금어는 용하와 축연으로 1875년 신흥사에 모셔졌던 〈삼척 신흥사 아미타후불도〉를 그린 화승과 제작자가 동일하고, 표현기법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어 같은 해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위태천이 새 깃과 짐승가죽이 달린 투구를 쓰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위태천의 두광 좌우에는 제석천, 범천이 각각 합장하여 시립하였고, 그 사이에는 동자가 공양물을 들고 정면을 향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위태천 좌우에는 각각 흰 부채를 든 산신과 푸른 두건을 쓴 조왕신이 배치되었습니다. 그 좌우에는 천녀들이 각 1위씩 바람에 날리는 번을 들고 있습니다. 위태천의 앞쪽에는 무인의 형상을 한 4위의 신중들이 칼이나 검을 들고 호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삼척 신흥사 신중도

三陟 新興寺 神衆圖

Painting of Buddhist Guardian Deities
in Sinheungsa Temple, Samcheok

조선후기(1875년 추정)

삼베 바탕에 채색

98.5×85.8cm

용하, 축연, 철유, 성운, 광엽

삼척 신흥사 신중도는 강원도 삼척부 태백산 신흥사에서 제작하여 신흥사 원통암에 봉안되었던 불화입니다. 제작에 참여한 금어는 용하와 축연 등으로 1875년 그려진 〈신흥사 아미타후불도〉를 그린 화승과 동일하여 같은 해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의 중앙에는 위태천이 두손을 모아 금강저 상부 끝 부분을 쥐고서 화면 왼쪽에 시선을 두고 서 있는 모습이며, 위태천의 좌우로는 각 1위씩의 신장이 갑옷을 입고 칼이나 검을 들고 있습니다. 위태천을 중심으로 좌측 상부에는 제석천이 시립하였으며, 위태천의 우측으로는 부채를 든 산신을 비롯한 선신 3위가 그려졌고 화면 상부에는 천동과 천녀가 그려졌습니다.



영월 보덕사 칠성도

寧越 報德寺 七星圖

Painting of Seven Star Spirits (Chilseong)
in Bodeoksa Temple, Yeongwol

조선후기(1876년)

비단 바탕에 채색

129.0×213.5cm

응석, 창은, 춘만

칠성도는 재앙을 물리치고 장수를 기원하는 대상이 되는 하늘의 별, 복두칠성을 신격화하여 그린 불화입니다. 화면 중앙에는 치성광여래가 금륜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 좌우에는 여래, 성군, 보살들이 3단 구도로 모여있습니다. 치성광여래 앞으로는 협시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반가좌하여 삼존을 이루었습니다. 좌우 하부에는 칠원성군七元星君, 중간부에는 칠여래, 상부에는 자미대제紫微大帝와 태상노군太上老君, 좌보필성左補弼成과 우보필성右補弼成, 그리고 28수 중 14위가 시립하고 있습니다. 배접지 안쪽에서 조성발원문과 범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제작에 참여한 화승은 비구 응석應碩, 창은彰驪, 춘만春晩 입니다.



안동 봉정사 칠성도

安東 鳳停寺 七星圖

Painting of Seven Star Spirits (Chilseong)
in Bongjeongsa Temple, Andong

제천 김연호 선생 기증
조선후기(1893년)
면 바탕에 채색
93.0×79.0cm
동호진철, 상조

칠성도의 중앙에는 치성광여래가 왼손에 법륜을 들고 있으며 청련화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치성광여래의 대좌 양 옆에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각각 합장하여 여래를 향해 시립하였습니다. 그 바깥쪽 좌우에는 조복을 입은 인물이 각각 4위씩 그려졌는데 원유관을 쓴 인물 칠원성군(七元星君) 6위와 일월관을 쓴 일궁천자, 월궁천자의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화면 상부에는 구름을 탄 천인들 6위가 표현되었습니다. 화면 하부의 기록에 의하면 1893년에 사불산 대승사에서 만들어져 안동 봉정사에 이운되어 봉안된 불화이며, 화승은 동호진철(東昊震徹), 상조(尙祚)가 참여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평창 오대산 중대 석가여래회도

平昌 五臺山 中臺 釋迦如來會圖

Painting of the Buddha preaching
in Jungdae of Mt. Odaesan, Pyeongchang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江原特別自治道 有形文化財

조선후기(1894년)

비단 바탕에 채색

136.0×240.0cm

보암금법, 윤조

오대산 중대 향각에 봉안되었던 비로자나불의 후불탱화로 서울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보암금법이 수화사로 제작한 초기작품입니다. 화면 중앙에는 본존인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입니다. 본존 주위에는 미륵보살, 지장보살 등 보살 4위와 사천왕, 부처의 10대 제자 중 여덟 제자가 모여 대칭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존 두광 좌우에는 벽지불이, 상부 양쪽 끝에는 각각 용왕과 용녀가 배치되었으며 화면의 최상부에는 구름이 표현되었습니다. 채색은 바래었으나 적록계열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편 중대에서 만들어진 <월정사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나온 발원문을 통해 1894년 당시 중대에서 불상제작 불사가 있었던 사실과 불화제작에 참여한 장인이 불상제작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창 오대산 중대 신중도

平昌 五臺山 中臺 神衆圖

Painting of Buddhist Guardian Deities
in Jungdae of Mt. Odaesan, Pyeongchang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江原特別自治道 有形文化財

조선후기(1894년)

면 바탕에 채색

122.0×114.0cm

범화윤익, 보암금법

오대산 중대 향각에 봉안되었던 부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천룡팔부, 즉 신중을 그린 불화입니다. 화면의 상부 중앙에는 새 날개깃이 장식된 투구를 쓴 위태천韋駄天을 중심으로 제석천帝釋天和 범천梵天 및 천부중天部衆이 배치되었습니다. 화면 하부에는 천룡팔부天龍八部 5위가 호위하는 모습으로 시립하였습니다. 화면 좌측에 먹으로 쓰여진 화기畵記에는, 이 그림을 1894년에 중대 향각에 봉안하였던 사실과 불사에 참여하였던 증명證明, 송주誦呪, 금어金魚, 별좌別坐, 화주化主 등 명단이 적혀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화승, 금어金魚는 범화윤익梵化潤益과 보암금법普庵肯法, 성민性敏 입니다. 이 신중도는 범화윤익이 수화승으로서 그린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데, 밝은 청색의 사용과 인물의 상호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상원사 영산전 나한도

上院寺 靈山殿 羅漢圖

Painting of Sixteen Arhats
in Sanwonsa of Mt. Odaesan, Pyeongchang

조선후기(1888년)
면 바탕에 채색
134.0×161.0cm
혜산축연 외 6인

나한도는 부처의 제자인 아라한을 형상화하여 그린 불화이며, 주로 16존상으로 표현됩니다. 이 나한도는 4쪽으로 만들어졌으나 2쪽이 유실되고 남은 2쪽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기에 의하면 1888년에 제작되어 상원사에 봉안된 불화로 수화승은 혜산축연(惠山竺衍)이고 동참화사는 6인으로 덕산묘화(德山妙花), 만과정익(萬波正翼) 등이 함께 그렸습니다. 특징적인 나한의 표현으로 그 신통력을 증명하듯 상서로운 짐승과 함께있거나, 경전을 든 모습이 그려졌고 나한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인물들이 곳곳에 묘사되었습니다.



상원사 영산전 나한도

上院寺 靈山殿 羅漢圖

Painting of Sixteen Arhats

in Sanwonsa of Mt. Odaesan, Pyeongchang

조선후기(1888년)

면 바탕에 채색

135.0×178.0cm

해산축연

상원사 영산전 나한도 두 폭 중 한 폭입니다. 괴석과 소나무가 있는 자연을 배경으로 나한 4위와 동자 6위가 있는 모습입니다. 나한은 각각 화면 상부에 앉은 모습인데, 정면향으로 가부좌를 하거나 유희좌를 하였고 등을 지고 앉은 모습도 보입니다. 각각의 나한의 주위로는 경책이 달려있거나 함에 넣어진 모습으로 배치되었고, 벼루와 붓, 인장, 연꽃이 담긴 화병, 괴석 위의 향로 등 진귀해 보이는 공예품들이 사실감 있게 표현되었습니다. 동자들은 화로에 불을 지피거나 물을 길거나, 경책을 들거나 또는 무릎을 꿇고 향 공양을 올리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상원사 신중도

上院寺 神衆圖

Painting of Buddhist Guardian Deities
in Sanwonsa of Mt. Odaesan, Pyeongchang

조선후기(1888년 추정)
면 바탕에 채색
157.0×133.0cm

화면의 중앙에는 위태천이 보검을 든 채 합장하여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그 좌우 상부에는 제석천·범천이 합장하여 정면향으로 시립한 모습입니다. 위태천의 좌우 상·하부에는 해와 달이 그려진 관을 쓴 일궁천자 日宮天子와 월궁천자 月宮天子가 표현되었습니다. 화면 하부에는 산신과 판관, 신장들이 그려졌습니다.

제석천 옆에는 산개(傘蓋)를 든 천녀, 범천 옆에는 번을 든 천녀가 시립하고, 화면 상부에는 동자 3위가 공양물이나 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물의 표현에서 금박을 사용하였으며 신장의 상호는 입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화면에 사용된 채색과 표현기법이 축연(竺衍)이 제작한 〈상원사 영산전 나한도〉(1888년)과 유사하여 같은 해에 함께 그려진 불화로 추정됩니다.



상원사 석가여래설법도

上院寺 釋迦如來說法圖

Painting of the Buddha preaching in
Sanwonsa of Mt. Odaesan, Pyeongchang

조선후기(1888년 추정)
면 바탕에 채색
144.5×221.5cm

화면 중앙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 4위가 정면향으로 시립하였으며, 그 바깥쪽으로는 상하부에 각각 사천왕이 비파, 검, 용 탑 등 지물을 든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화면 상부에는 여래의 두광 좌우로 십대제자가 표현되었습니다. 채색은 주로 붉은색과 군청과 녹색, 황토색 등을 사용하였으며 여래와 보살의 복식에는 금선묘로 문양을 넣었습니다. 1888년에 수화승 축연^{쓰헐}이 제작에 참여한 <상원사 영산전 나한도>와 색감이 유사하고, 불·보살과 사천왕, 십대제자 등 존상의 표현기법이 축연의 다른 불화들과 일치하여 심육나한도를 제작할 때 함께 제작한 불화로 짐작됩니다.



구룡사 신중도

龜龍寺 神衆圖

Painting of Buddhist Guardian Deities
in Guryongsa Temple, Wonju

일제강점기(1911년)

삼베 바탕에 채색

117.0×110.0cm

두흙, 붕은

화면 오른쪽 상부에는 합장을 한 제석천, 범천이 자리하고 있으며, 두광은 각각 청색과 녹색, 신광은 옅은 붉은색입니다. 화면 왼쪽에는 위태천이 화염火焰 광배를 갖추었으며 새의 깃이 달린 투구를 쓰고 큰 창을 든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위태천의 좌우에는 갑옷을 입은 신장, 부채를 든 산신, 생황을 연주하는 동자가 묘사되었습니다.

화면 하부 중앙에는 원유관을 쓴 용왕이 합장을 하였는데 왼쪽으로 신장 3위가 갑옷을 입고 검을 들었으며, 오른쪽에는 천녀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화면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어두운 녹색은 박락이 있고 선명한 푸른색이 대비됩니다. 이 그림을 제작한 금어는 편수 두흙斗欽과 붕은奉恩입니다.



구룡사 석가모니후불도

龜龍寺 釋迦牟尼後佛圖

Painting of the Buddha preaching
in Guryongsa Temple, Wonju

일제강점기(1912년)

면 바탕에 채색

274.5×295.0cm

화암두흙, 의운상은

화면의 구성은 중앙에 석가모니가 향마촉지인을 하고 수미단 위 연화대좌에 앉아 있으며, 그 좌우에는 보살 6위, 사천왕, 10대 제자, 천녀, 용녀, 동자가 모여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존상들의 상호와 신체 비례가 세장한 느낌을 주고, 대좌 아래의 안상문 구획 속에 꽃을 그려넣은 표현이 독특합니다. 화면 상부의 구름이 뻗어나가는 모습, 본존의 연봉형 광배, 존상들의 운문 광배, 대좌의 별도 구획에서 〈봉복사 석가모니후불도〉와 유사성이 보입니다. 그림 둘레의 먹선 바깥쪽 하부 좌우에는 붉은색 바탕의 기록이 있습니다. 향우측 연화질緣化秩에 이 불화의 제작에 참여한 화승으로 화암두흙華庵斗欽과 의운상은義雲尙恩이 기록되었습니다.



봉복사 석가모니후불도

鳳腹寺 釋迦牟尼後佛圖

Painting of the Buddha preaching
in Bongboks Temple, Hoengseong

일제강점기(1913년)

면 바탕에 채색

162.0×209.0cm

화암두흙, 의운상은, 보명상오

석가모니가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켜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수미단 위 연화대좌에 앉아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불화입니다. 전체적으로 색이 어두우나 본존의 연봉형 두광 위에는 오색구름이 띠 형태로 뻗어나가는 듯 그려져 화사한 느낌을 줍니다. 여래 좌우에는 벽지불 2위, 보살 6위, 사천왕, 가섭 존자와 아난존자가 녹색 두광을 갖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부처의 제자, 호계대신, 복덕대신, 용왕과 용녀 등이 군집하여 단을 이룬 대칭적 구도로 표현되었습니다.

수미단 아래 현관 형태로 구획된 화기에는 금어 편수 화암두흙華庵斗欽, 의운상은義雲尙恩, 보명상오普明尙悟가 참여하여 이 불화와 함께 독성도, 신중도, 산신도가 새롭게 그려져 봉복사에 봉안되었던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보유처 또는 소장처	분류	유물 명칭	연대 및 제작자	문화재 지정 여부	비고
강릉 백운사 (금강산 장안사)	불교 회화	강릉 백운사 소장 현왕도	조선후기 1879년 화산재근, 철유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삼척 태백산 신흥사	불교 회화	삼척 신흥사 아미타후불도	조선후기 1861년 증봉혜호, 장엄		
		삼척 신흥사 아미타후불도	조선후기 1875년 용하, 축연, 철유 등 5인		
		삼척 신흥사 신중도(청련암)	조선후기 1875년 용하, 축연, 철유 등 5인		
		삼척 신흥사 신중도(원통암)	조선후기 1875년 용하, 축연, 철유 등 5인		
	불교 조각	운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조선후기 1700년경 제작, 1791년 흥안, 광순, 팔정, 신경, 거영 개금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신흥사 석조관음보살좌상	조선후기 1711년 승식, 여철		
삼척 태백산 영은사	불교 회화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	조선후기 1811년 계성 등 25인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삼척 영은사 석가삼존도와 복장유물	조선후기 1841년 봉촌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삼척 태백산 지장암	불교 조각	삼척 지장암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	조선후기 1726년 여찬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안동 천등산 봉정사	불교 회화	안동 봉정사 칠성도	조선후기 1893년 동호진철, 상조		
영월 태백산 보덕사	불교 회화	영월 보덕사 사성전 후불탱화 및 복장유물	조선후기 1868년 의운자우, 응현, 장석 등 15인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	조선후기 1786년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영월 보덕사 칠성도	조선후기 1876년 응석, 창은, 춘만		
오대산 상원사	불교 회화	상원사 석가여래설법도	조선후기 1888년 추정		
		상원사 영산전 제석천도	조선후기 1888년 추정		
		상원사 영산전 신중도	조선후기 1888년 추정		
		상원사 영산전 나한도	조선후기 1888년 해산축연 외 6인		
	불교 조각	평창 상원사 영산전 목조미륵보살상	조선후기 1711년 조각승 해주, 정행, 사언, 화승 진취, 도청 제작, 1886년 축연 재색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오대산 중대	불교 회화	평창 오대산 중대 석가여래회도	조선후기 1894년 보암공법, 운조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평창 오대산 중대 신중도	조선후기 1894년 법화윤익, 보암공법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원주 치악산 구룡사	불교 회화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조선후기 1727년 백기, 영취	보물	11월 10일 까지 전시
		구룡사 삼장보살도 복장유물	조선후기 1727년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구룡사 석가모니후불도	일제강점기 1912년 화암두흙, 의운상운		
		구룡사 신중도	일제강점기 1911년 두흙, 형은		
황성 덕고산 봉복사	불교 회화	봉복사 석가모니후불도	일제강점기 1913년 화암두흙, 의운상운, 보명상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운영활성화 사업
월정사성보박물관 특별전

강원지역의 불교회화

2023.9.1.金 - 12.31.日



월정사 성보박물관
Woljeongsa Museum